

함평, 멸종위기 식물 ‘풍란 전시회’ 개최

오는 8월 31일까지 나도풍란·풍란 4000여 점 전시

멸종위기 식물인 ‘풍란’을 만나 볼 수 있는 지리가 함평군에 마련된다.

13일 함평군에 따르면 2023년 풍란 전시회가 오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함평자연생태공원 풍란전시관에서 열린다.

‘소중한 우리의 멸종위기 식물’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멸종위기 식물인 풍란의 보존 가치를 알리기 위해 마련했다.

전시회에는 수려한 색상과 기품있는 향기를 가진 나도풍란과 풍란 등 4000여 점을 전시할 예정이다.

나도풍란은 아름다운 꽃이 피는 상록성 여러해살이 난초로, 전남 도서 지역과 제주도에서 자란다는 기

록이 있으나 현재는 발견되지 않으며 관찰 가치가 매우 높다.

풍란은 아시아 온대 지방에서 자라는 여러해살이 착생란으로 전남과 경남 해안지역, 제주도 등지에서 주로 자생하며, 향이 매우 진해 원예적 가치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함평군 관계자는 “이번 전시회는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없는 풍란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멸종위기 식물 보존을 위해 많은 관심 바란다”고 말했다.

멸종위기 생물 보존을 위한 제14회 멸종위기 야생생물 그림그리기 전국대회는 오는 9월까지 함평자연생태공원 내 체험학습장에서 진행한다. /함평=김홍희 기자

장성, 국립남도음식진흥원 유치 준비 ‘착착’

향토·사찰음식 교육·남도음식영화토크쇼 개최

역량 강화·기반 조성 주력… ‘맛의 방주’ 등재 추진

장성군이 대한민국 밥상을 넘어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기 위해 ‘국립남도음식진흥원’ 유치 준비에 온 힘을 쏟고 있다.

13일 장성군에 따르면 국립남도음식진흥원은 우리나라 음식문화를 발굴·보존·연구·개발하는 국가기관으로 현재 농림축산식품부가 진흥원 설립 타당성 용역을 추진 중이다.

광주·전남 회복단에 위치한 장성군은 맛의 고장으로 유명한 전남의 관문에 위치한다. 호남고속도로를 품은 데다 KTX까지 경유해 진흥원 설립 최적지로 꼽힌다.

장성군은 국립남도음식진흥원 유치 준비의 일환으로 역량 강화와 기반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최근엔 향토음식에 관심 있는 청년·학생·농업인 등이 참여한 남도·향토음식 진흥교육 8주 과정을 마무리했다.

광주 첨단 장성로컬푸드직매장에서 향토음식 요리교실을 열고, 백양사 천진암에선 한국전통사찰음식연구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정관스님으로부터 사찰음식을 배웠다.

지난 5일에는 국제슬로푸드생명다양성재단과 ‘맛의 방주’ 등재를 위한

향토음식 발굴 간담회도 가졌다.

사라질 위기에 놓인 향토음식과 토종 종자를 ‘맛의 방주’에 등재해 소멸을 막고 관심을 이끌어 내는 것이 목적이다.

올해 5월 열린 장성 황룡강 홍길동무 꽃길축제에선 ‘남도음식영화토크쇼’를 마련해 이목을 끌었다.

대외적인 교류도 활발하다. 프랑스 요리 전문학교 르꼬르동블루의 에릭 브리과 본교 학과장, 관계자들과 유립연합대사단이 사찰음식 체험을 위해 백양사를 찾기도 했다.

또 지난해 말에는 장성군과 동신대

학교가 업무협약을 통해 미식관광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최근 업무협약을 맺은 씨제이(CJ)푸드빌과는 장성 농특산물로 신메뉴를 개발할 예정이다.

여기에 ‘마을 조리장 발굴’도 추진된다. 집장, 감단지 등 장성산 식재료를 활용한 고유의 조리법을 지닌 주민을 마을 조리장으로 임명해 향토음식 진흥을 도모할 계획이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한국음식, 케이(食)-푸드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장성군이 가장 적합하다”면서 “체계적인 준비로 국립남도음식진흥원 유치를 한 걸음씩 다가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성=심재식 기자

영광, 음식점 위생등급제 운영·확대

영광군은 믿고 먹을 수 있는 외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으로 시행되며 음식점 위생수준 향상·식중독 예방·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대상으로 위생수준을 평가 후 위생등급업소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평가항목은 △기본분야 5항목(식품위생법 관련 준수사항 등) △일반분야 33항목(위생분야) △공통분야 6항목(가·감점분야)의 3개 항목이며 평가점수에 따라 등급(매우우수★★★, 우수★★, 좋음★)을 부여한다.

위생등급제 신청 업소는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전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정 시 ▲ 지정 표지판 제공 ▲ 배달어플, 네이버 플레이스 등에 위생등급 지정업소 표시 및 홍보 ▲ 다양한 위생물품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현재 영광군에서는 총 27개소(매우우수 21, 우수 4, 좋음 2)가 지정되어 운영 중이며 카카오톡 홍보 채널 및 영광군 홈페이지에 게재해 위생등급제 지정업소를 홍보하고 있다.

강종만 군수는 “군민이 안심하고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위생등급제 지정을 확대하고 지정업소에 대한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영광=서종민 기자

장흥 ‘친환경 무산김’ 종자 주권 확보 총력

장흥 무산김 품종 개발·보호 등록… 대외 인지도 확보 노력

장흥군이 친환경 ‘무산김’의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 품종 개발과 품종 보호등록을 서두르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장흥군은 2008년부터 유·무기산을 쓰지 않는 전통 김 양식방법으로, 전국 최초의 친환경 김 브랜드인 ‘장흥 무산김’을 탄생시켰다.

하지만, 매년 변화하는 환경에 따라서 해역 및 무산김 양식방법에 적합한 특화 김 품종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장흥군은 친환경 무산김 양식방법에 적합한 종자를 개발하고자 2009년 장흥 해역에서 무산김 양식에 적합한 종자를 선발해 7년의 육종 과정을 거쳐서 최종 3개 품종을 2016년 ‘품종보호등록’출원을 신청했다.

이후 3년 간의 까다로운 품종심사



를 거쳐 2020년(홍초3호), 2021년(홍초2호) 각 2종의 품종이 등록이 완료됐다.

현재 ‘홍초1호’는 마지막 재배심사를 거쳐 올해 6월 최종 등록을 앞두고 있다.

품종보호등록은 식물신품종 보호제도에 따라서 진행되며, 보호 및 등록을 위한 요건은 신규성,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 등 까다로운 과정을 거친다.

등록이 완료된 품종은 해당 기관에

20년 동안 권리를 갖게 된다.

이러한 성과는 시·군 단위 최초 해조류의 품종보호 등록으로 일러졌다.

품종보호등록으로 장흥군은 김 생물 다양성 보전과 육종 원천 소재 확보 뿐 아니라, 김 종자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흥군은 2018년 해양수산부 공모사업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사업’에 선정돼 ‘김 우량종자 생산시설’을 설치했다.

2021년 배양실, 연구실을 갖추고 문을 연 ‘김 우량종자 생산시설’은 홍초 종자를 비롯한 우량종자 보전·배양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김성 장흥군수는 “친환경적인 무산김 산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환경에 대응하는 우량 김 종자 연구가 필요하다”며, “품종보호 등록을 통해 종자 주권을 확보하고 ‘장흥 무산김’의 대외적 인지도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흥=임민기 기자

담양, 한재골 숲속놀이센터 운영 아이디어 공모

오는 30일까지 운영 전략·프로그램 제안 등

담양군이 준공을 앞둔 (가칭)한재골 숲속놀이센터의 운영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13일 밝혔다.

한재골 숲속놀이센터는 수려한 계곡과 울창한 산림자원(편백나무, 벚나무, 산딸나무 등)을 자랑하는 한재골 수목정원에 위치한 279㎡ 크기의 건축물이다.

올해 하반기 운영 개시를 앞두고 있으며, 민간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모 내용은 ▲한재골 숲속놀이센터의 운영 전략과 콘텐츠 구성

▲한재골 숲속놀이센터의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운영방안 ▲찾아오고 싶은 매력적인 공간(건축물)이 되는 방안 ▲건축물 운영, 도입 시설과 프로그램 제안 등이다.

심사를 거쳐 7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금, 은, 동상에 각각 100만 원, 50만 원, 30만 원의 시상금이 주어진다.

공모 기간은 6월 말까지이며 이메일(sc015@korea.kr), 우편, 방문 접수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담양=조승태 기자

“나주, 대중교통 보조금 논란 해소한다”… 26일 시민설명회

오후 4시 나주시민회관에서 각종 논란·의혹 팩트체크 투명 공개

민선8기 대중교통 노선개편 추진상황·계획 공유… 의견 수렴

나주시가 대중교통 노선 개편과 운수회사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일고 있는 논란 해소를 위해 대시민 설명회를 연다.

나주시는 오는 26일 오후 4시 나주시민회관에서 대중교통(나주교통) 보조금과 노선개편 관련 시민설명회

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총 2부로 진행된다. 1부는 나주교통 보조금 전반에 대해, 2부에선 민선8기 대중교통 노선 개편 추진 현황과 계획을 설명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

나주시는 대중교통분야 전문가를

통해 보조금 지원방식과 종류, 표준운송원가 개념, 원가 산정·정산 절차 등을 시민 눈높이에 맞춰 설명할 예정이다.

또 주민감사청구, 시민사회 고소·고발과 회계 검증 용역 결과에 따른 운수회사 처분 내용과 결과를 공개하고 개선사항도 투명하게 공유한다.

보조금과 관련해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선 사실관계(팩트 체크) 확인

을 위한 질의·응답의 시간도 갖는다.

설명회 이후엔 지역별, 각계각층 시민의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읍·면·동 순회 설명회를 7월 중 개최할 예정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대중교통 보조금을 둘러싼 각종 논란과 의혹을 사실에 기반해 진솔하게 설명하기 위해 시민설명회를 개최한다”며 “보조금은 줄이고 이용은 편리한 혁신적인 대중교통 노선 개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나주=조성준 기자



장성군
Jangseong



색(色)채도시 장성에서 즐기는 색(色)다른 여행

엘로우시티 장성